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사회의 냉기를 녹이는 벤처정신



2005년 12월, 벤처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협회는 1만여 벤처기업이 정보와 경영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10년 동안 나라 전체가 위협을 느꼈던 IMF 위기와 벤처 위기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생성과 소멸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협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젊은 힘을 보여주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핑음을 내며 돌아가는 생산 현장의 기계를 떠올리게 하는 벤처의 젊은 정신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리라 믿는다.

벤처업계가 지속해 온 ‘벤처스러운’ 사회공헌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상대적 추위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최근 벤처업계를 너무도 갑작스런 강추위로 몰아간 상황들 때문에 그 비감함과 결연함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추위를 이겨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협회는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최근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읽힌다. 벤처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건강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벤처기업의 젊은 경영의지만큼 젊은 정신으로 새롭게, 힘차게 전개해 왔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NGO와 수혜기관에 신선한 기쁨과 보람을 심어주었다. 이는 벤처스러운 젊고 신선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새로운 시도들이었고 건강한 도전정신이 담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믿는다.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현장 모두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중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벤처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은 강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IT 강국답게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참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눔을 약속하던 젊은 벤처인,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를 따모로 범벅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실천정신 등 참여했던 모든 벤처기업을 떠올릴 때마다 사업의 성공과 건강한 정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새 각오와 비전으로 봄을 맞는 협회가 되길
협회는 10주년 창립행사에서 지난 시간을 함께해 온 회원사들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벤처기업의 뜻을 모아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천명했다. 사회의 이목이 어느 때보다도 벤처업계에 집중되어 있는 때이기에 모든 행보가 조심스럽고 민감하기까지 하다. 바라보는 마음이 계절처럼 추위가 느껴진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떠올려 본다. 이제까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이제까지 시도해 온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씩씩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주저해야 할 것만을 의식한다면 한 걸음인들 젊은이답게 내딛을 수 있을까? 젊은이의 정신을 지탱해 주는 올바른 자기철학이 있다면 행보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회의 몇몇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웠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사회 전체가 냉혹한 한기에 휩싸여 있었던 그 시대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의로움을 위한 힘찬 행보를 했고,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우리사회의 냉기는 녹기 시작해 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올 한해 동안 매달 ‘노블리스 오블리주’ 칼럼을 기고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애정도 커졌다. 벤처의 저력을 믿기에 지금 느껴지는 냉혹한 추위도 벤처정신으로 따뜻하게 녹여 내리라 믿는다. 10주년을 맞이한 협회가 젊은 철학을 근간으로 선도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마련하는 벤처기업의 사령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마지막 글은 협회를 이끌고 계신 조현정 회장님께 바칩니다.)